



누리호,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으로 발사 중단

-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 후 발사 준비 재개 여부 확정 -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,)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(,)은 누리호 발사 준비 과정 중 발사 제어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생하여 오늘(5.24)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.

(5.23) , 11시 15분 이후 발사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을 체결하였으며, 발사 당일인 오늘 오후 12시 24분 , 15시에 이상 현상 발생을 확인하였다.

현재 항공우연 연구진들이 통신 이상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며, 향후 원인 분석 및 이상 현상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후 발사가 재개될 예정이다.

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 “안전하고 성공적인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해 25일 오전 중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황을 종합 검토한 후 발사 일정을 다시 발표할 계획” .

담당 부서	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	책임자	과 장	김기석 (044-202-4640)
		담당자	서기관	김미미 (044-202-4644)